

남성 전 연령대 질환...치료로 자신감 되찾을 수 있어



윤 종 선
슈퍼맨비뇨기과 원장

발기부전

건강한 성생활은 삶의 활력과 만족도를 높여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때문에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는 질환인 발기부전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이어져 매사에 자신감을 상실

신체적 고통·정신적 트라우마 발생
약물·자가주사·외과적 수술 등 가능
임플란트 이식해 기능 활성화 유지
“건강한 성생활 삶 활력·만족도 ↑”

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새벽 발기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말라”는 말도 있다. 윤종선 서울 슈퍼맨비뇨기과 원장을 통해 발기부전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본다.

◇약물 등 무반응면 ‘보형물 수술’ 고려
발기부전의 내과적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자가주사법이 있다. 이러한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

나 음경 혈관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발기를 조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음경보형물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발기부전 수술 중 하나가 굴곡형 임플란트 수술이다. 굴곡형 발기부전 수술은 막대기 형태의 임플란트를 해면체에 삽입해 평상시에는 구부린 상태로 유지하다가 성관계 시 세워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음경해면체는 2개인데, 음경 자체가 왜소하거나 발기해면체의 직경이 너무 작을 시에는 한쪽에만 임플란트를 이식한다.

발기불능이 아닌 유지 장애가 있을 때에도 한쪽에만 삽입을 해서 발기를 유지시켜주면 수술 받지 않은 부위의 기능이 잘 활성화되는 사례가 흔하다.

◇수술시간 짧고 회복기간 빨라 노령에 적합
음경보형물 수술은 시간이 짧고 회복 기간도 빠르다. 임플란트 이상에 의한 부작용과 기계적 고장이 거의 없고 비용이 매우 저렴하다. 특히 피부 탄력이 떨어지는 노령의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이다.

임플란트를 하나 또는 둘을 삽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고, 적합하다고 단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시술받고자 하는 이의 나이, 기저질환 여부, 음경의 상태, 파트너와의 성생활 그리고 경제력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비뇨기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본인에게 적합한 음경 임플란트를 결정하면 된다.

◇치료 후 자신감 회복·건강한 성생활
발기부전 환자가 치료를 통해 발기가 회복됐

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다. “남자로서 자신감을 더 많이 가졌다”가 가장 많았고 “다시 태어난 기분”, “매사에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순으로 응답했다. 즉, 발기는 남자의 자존심인 셈이다.

윤종선 슈퍼맨비뇨기과 원장은 “최신 검사기법으로 연령별 발기부전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아 이에 따른 약물치료와 자가주사법 및 외과적 수술을 통해 이전 남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활력 넘치는 건강한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최근 대한미용외과학회가 서울 SK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제46회 미용·미래학술대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발기부전의 수술’(Operation of erectile dysfunction)에 대해 강의했다. /정리=기수희 기자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완식·오른쪽서 다섯 번째)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박인석·오른쪽서 여섯 번째) 관계자들이 최근 미래의료혁신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제공)

화순전남대병원 K-HOPE ‘연구-치료 플랫폼’ 가동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업무협약 신약 개발 시행착오 감소 등 기대

화순전남대병원이 연구·임상시험·치료를 잇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14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K-HOPE(Korea-Hwasun Oncology Precision Biomedicine & Experimental Trials) 사업단은 최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연구 성과를 임상시험과 신약 개발로 연계하는 내용이 담겼다.

K-HOPE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한국형 암 특화 디지털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사업으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디지털 인체자원은행 구축을 핵심축으로 연구와 임상시험을 하나로

잇는 통합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한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여년간 축적한 암 환자 중심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데이터는 신약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는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 임상시험이다. 병원이 보유한 환자의 의료데이터와 연구 데이터를 통해 임상시험 설계 정확도를 높이고 환자별 치료 반응을 사전에 예측하며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한다.

병원 측은 이 같은 통합 체계가 자리 잡으면 임상시험 성공률이 높아지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시행착오가 감소하며 환자 맞춤형 치료 적용 속도 또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비임상 연구 성과의 신약 개발 연계 강화 ▲임상시험 수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고도화 ▲데이터 기반 연구·임상 통합

플랫폼 구축 ▲정밀의료 기반 신약 개발 지원 체계 확립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완식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환자 중심의 연구환경과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임상시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며 “K-HOPE 사업 선정에 이어 이번 협력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국내외 임상시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인석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그동안 연구와 임상시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지만, 화순전남대병원이 K-HOPE 사업을 통해 지역 기반 임상시험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상과 데이터 역량을 결합해 국내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병원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밝은안과21병원, 국내 첫 ‘클라레온 팬옵티кс 프로’ 도입

알콘사 삼중초점 인공수정체 근거리·원거리 등 시야 선명

밝은안과21병원은 14일 “글로벌 안과 의료기기 전문 기업 알콘(Alcon)의 차세대 인공수정체인 ‘클라레온 팬옵티кс 프로’(Clareon PanOptix Pro)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클라레온 팬옵티кс 프로는 기존 클라레온 팬옵티кс의 장점을 기반으로 성능을 한층 강화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현대인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설계된 삼중초점 인공수정체다.

가장 큰 특징은 혁신적인 광학 기술인 ‘ENLIGHTEN NXT’가 적용돼 빛 에너지 활용도를 9%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에



서 보다 선명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초점 거리 전환 시 시야 왜곡을 최소화해 연속적이고 자연스러운 시야를 구현하며, 빛 산란을 줄이고 대비 감도를 향상시켜 일상 속 사물의 형태를 더욱 또렷하게 인지할 수 있다. 특히 야간 시력의 질을 개선하고 빛 번짐, 눈부심 현상을 크게 감소시켜 편안한 시야를 제공한다.

김주엽(사진) 대표원장은 “클라레온 팬옵티кс 프로는 한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인공수정체다”며 “앞으로도 최신 의료기술을 도입해 환자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심뇌혈관 강좌’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최근 세계 보건계의 날(4월7일)과 건강주간을 맞아 지역자원 연계형 사업을 통해 전북 정읍시 연지아 트홀에서 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환자 및 질환 고위험군 20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검진 및 건강강좌’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외에도 한국심장재단,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원광대학교병원), 정읍시보건소, 정읍아산병원 등 지역내 보건 의료 유관기관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현장에서는 오전 8시부터 참여자 200명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등 10종의 무료 건강검진이 진행됐다.

건강강좌에서는 ▲김남호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교수의 ‘이상지질혈증 바로 알기’를 시작으로 ▲지미선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센터장의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질환’ ▲이영훈 전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교수의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예방관리’ 강의가 차례로 이뤄졌으며 평소 주민들이 궁금해하던 올바른 약물복용법 등도 안내했다.

이영희 본부장은 “이번 건강강좌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자가 건강관리를 통해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